천국내시경을 통해 땅을 산다

(엡5:6~14)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내시경을 통해 땅을 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내시경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신체 내부에 병이 생겼을 때 그 병변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확인하려면 부검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째봐야지 압니다.
근데 이 내시경이라고 하는 의료기구가 생기면서 부검을 하지 않아도, 기관지라든지, 식도라든지, 위 뭐 십이지장 아니면 뭐 대장이라든지 방광, 이런 모든 신체 내부의 장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시경을 오늘 제목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특별히 이 상황을 유념하셔서 마음에 기억하시면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의사선생님들, 특히 내과 의사선생님들이 내시경을 통해 시술을 할 때, 수술이라 그러지 않고 시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실에서 시술을 할 때 수술실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내시경으로 보이는 신체 내부의 병변에 대해서만 확인하면서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천국내시경을 통해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의사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내시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내시경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한 번 쉽게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색시가 너무너무 예뻐서, 그 색시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어쩔 수없이 그 색시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직장에 나왔잖아요.
직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색시는 신체 내부의 장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색시한테로 가 있습니다.
마음의 렌즈가 색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웃음이 나옵니다, 회사의 주변상황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실적이 떨어졌다고 팀장님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귀에는 화난 팀장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마음의 눈은 마치 의사선생님들의 내시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장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색시에게로 가 있으면서, 색시가 밥하는 모습을 보고, 색시가 웃는 모습을 보고, 색시가 막 뭐라고 자기한테 따지는 모습을 보고 귀여워서 웃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시경 효과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이 보스턴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보스턴에 폭탄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육체가 있는 서울은 아주 평안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절부절 하는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무슨 일 있어?
마음이 보스턴에 가 있으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스턴에 내시경 효과를 내면서 마음이 거기 가있어서, 마음이 그걸 보면서 내 육체가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내시경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마음이 보면서, 그 마음이 보고 있는 곳에서의 반응을 따라 육체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시경 효과라는 거지요.
의사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육체 안의 병변을 내시경을 통해 보면서, 주변상황과는 관계없이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과 육체가 붙어 있으면서, 육체가 있는 곳에서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마는, 이런 마음의 내시경 효과를 내는 순간들이 때로는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둠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거지만 보이는 모든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라는 것은 본다는 것과 늘 같이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럼 어둠이라는 건 뭐냐?
볼 것을 못 보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 상태를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삶이라고.
그럼 어두움이었을 때 특징은 뭡니까?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말에 속아서 사는 게 어둠속에서 사는 겁니다.
볼 걸 못보고 사는 거예요.
마땅히 봐야 되는데 못보고 사는 삶, 어둠속의 삶이라는 거지요?
근데 어둠속의 삶의 특징이 헛된 말에 속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말이 뭘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와 쌍으로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상응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릴 때, 이건 헛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된 약속, 헛된 약속은 어떤 거지요? 약속은 말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헛된 말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건 성취가 없는 겁니다, 약속에 상응하는 현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색소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색소폰이라고 하는 그 진짜 실제 악기가 없다면, 이 색소폰이라는 말이 헛된 말이 되는 겁니다.
항상 존재와 실제에 상응하는 말이라야 헛된 말이 되지 않는 거라는 얘기에요.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헛된 말이라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말 중에, 만족이라는 말이 있고, 기쁨이라는 말이 있고,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답게 해주는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만족, 기쁨, 성공, 보람, 행복.
이런 단어들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어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만족거리=돈, 실제 돈이 곧 만족거리다.
이게 바로 헛된 거라는 겁니다, 돈을 만족거리로 생각한 거.
또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대통령 되고 장관 되는 걸 만족거리로 생각하는 것.
이게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헛된 말에 속아 가지고,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행동을 한다.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어둠의 행동들을 이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이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 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다 말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만족할 텐데' 이게 다 헛된 말이고, '뭐 뭐 있으면 좋겠다, 저 차를 내가 사서 타고 다니면 기쁘겠다!' 이게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만족거리라는 말, 기쁨거리라는 말, 행복의 근거라는 말, 이 모든 말에 상응하는 유일한 참 실제는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저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가득 차 들어오시지 않으면, 마음 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성공과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것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온통 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런 말들에 상응하는 실제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줄 알고, 대학에 못 들어간 자식 때문에 불행한 줄 알고 우울해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된 말에 마음이 묶여 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어둠속에 묻혀서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숭배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에요.
그 당시 전 세계의 아데미 신전 중에 제일 컸습니다.
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와 같은 어마어마한 대리석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한 일이 뭐냐 하면, 5월의 축제를 예를 들면, 유방이 24개가 달린 아데미 여신을 앞세워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흰옷을 입은 24명의 여자사제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거세한 남자사제들이 여자사제들의 신변을 보호하듯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부둣가에 오면 행렬이 끝나는데, 그 곳에 24마리의 황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한.

근데 이 황소들도 마찬가지로 다 거세한 황소들이에요.
근데 그 거세된 황소들의 고환을 목걸이로 만들어, 행렬에 앞장섰던 그 아데미 여신상 위에 목걸이로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고환과 유방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그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다 발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역겨워서 토가 나올 정도의 한심한 일들이 자행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풍요와 다산,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 한 마디의 헛된 말에 속아서 나온, 이 무지막지하게 역겨운 행동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헛된 어둠의 일들을 멈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풍요와 다산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거고, 만족할 거고, 기쁠 거라고 하는, 이 헛된 말 한 마디에 속아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에베소 전체가 다 빠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더러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오늘의 비유의 내시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어떤 걸까요?
지금 위에서, 위암이 걸려 가지고 암이 시작되는 초기단계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더니, 헛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다가 빨간약, 옥도정기를 발라 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절대 그걸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돈 벌어서 행복하겠다는 게, 위암이 걸린 사람 배에다가 옥도정기 발라주는 것과 같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8절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고,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공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머물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간적으로 갭이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딱 겹쳐 있습니다.
천국과 공중과 이 땅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의 세계는, 천국만이 빛의 세계입니다.
이 땅은 근본적으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햇빛이 있어도 어두움인 겁니다.
물리적인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은 빛의 세계도 아니고 어두움의 세계도 아닙니다.
공중은 가능성의 세계에요.
이 땅을 빛의 세계로 만드느냐, 어두움인 채로 남겨 두느냐의 가능성이 공중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마음이 천국에 달라붙어버리면, 천국의 빛이 마음을 통과해 가지고 육체로 흘러들어오면서, 그 빛에 따라 이 육체가 행동을 하게 되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마음이 천국에 붙지 않고 천국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시경이 되지 않으면, 내시경을 보면서 행동하는 의사선생님과 같은 그런 천국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를 아주 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해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주님의 육체의 눈에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으로 천국을 올라가서 마음의 내시경을 통해서 천국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놓여 있는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서, 내시경이 돼가지고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내시경을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아버지 보좌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보좌 속에서 평강의 빛이 나옵니다.
그 평강의 빛에 둘러싸여서 마음에 평강을 느끼면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눈에 보이는 풍랑을 보면서 마음이 압도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헛된 말에 속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풍랑 때문에 죽는 줄 알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줄 아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망하는 줄 아는 겁니다.
사업이 조금 안 돼서 내가 큰 불행에 처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헛된 말에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내시경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상황을 보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라는 건 뭡니까?
빛의 세계는 천국 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 천국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육체에 도달하게끔 해주지 않으면, 통로가 되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내시경이 되어 주지 않으면, 육체에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온통 헛된 말에 속아 어둠 속에 묻히고 갇힌 상태에서 열매 없는 행동들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쪽으로 아니면 위쪽으로, 천국, 공중, 땅 이거를 눕혀서 수평면 상에 세우면 천국이 내 마음 안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이 가운데 있고, 세상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앞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에 만족거리는 주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 뒤쪽에서 천국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Congratulations! 에요.
마음으로 이걸 깨닫는 것이 축하할 일입니다.
대학 들어가는 게 축하할 일이 아니고, 사업 잘되는 게 축하할 일이 아니고, 사장 승진하는 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닫는 거.
이 전면에 보이는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 그 어느 것으로도 아무리 채워봐야, 또 우울해지고 또 근심거리가 생기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근심, 있으면 있어서 근심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서점에 나가서 책을 보면, 거의 모든 책이 다 휴지인 걸 알게 될 거에요.
그때 Congratulation, 축하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 뒤쪽에 있는 빛의 세계와 연결이 될까?
마음이 어떻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내시경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십자가의 주님을 단단히 고정시키면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에 내 마음을 아예 딱 그냥 붙박이로 묶어버리면, 내 마음이 천국을 보는 내시

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내시경이 돼서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이 땅에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의사선생님들이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모니터상의 병변을 보고 반응하는 것처럼.
육체가 놓여 진 주변 수술실 상황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접해요? 공생애 부분에서?
아니 십자가에서.
십자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단단히 묶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 마음이 내시경이 돼가지고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면, 보좌의 아버지의 빛을 우리 마음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헛되지 않은 기쁨과 만족이 돼요.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기쁜데,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돈이 안 벌리고, 사장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래 갖고 또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다보니까, 마음이 십자가에 붙어가지고, 또 천국 내시경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또 마음이 기뻐요.
하여간 그 십자가에 붙어서 하늘만 접하게 되면 기쁜 거, 이게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벌어봤어요, 근데 안 기뻐요.
모자라나? 해서 더 벌어 봤어요, 근데 안 기뻐요, 또 우울한 뭔가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해결 못하는 걱정거리들이 있고, 돈을 아무리 쓰면서 쇼핑을 해 봐도 마음에 만족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헛된 말에 속아 가지고, 돼지머리 삶아서 상에다 올려놓고, 돼지 입에다가 돈 끼워 넣고 절하는 거예요.
예쁘고 잘생긴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다 그 짓하고 있어요, 영화 대박 나라고.
왜 그런 역겨운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토했던 것처럼, 반드시 창자 밑뿌리부

터 뒤집어질 정도로 역겨워서 토하게 될 일들을 왜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느냐?
다 헛된 말에 속아서 그렇고, 마음이 내시경이 돼 가지고 천국을 못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이지요.

간단합니다, 사도바울이 원하는 거는 하나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천국내시경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천국내시경이 되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기쁘고 만족해집니다.
그러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빛이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시경이 마음이 된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육체에 나타나게 될 때,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의사선생님들이 내시경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처럼, 주변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놓여있는 주변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기이히 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행동하시는 걸 보고 너희가 기이히 여기리라.
아! 기이히 여기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서, 보스턴에 있는 아들 테러사건이 일어난 그곳의 상황을 마음으로 보면서 안절부절 못할 때, 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들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변상황은 초토화 됐는데 내 마음은 행복하고 기뻐요.
사업이 안 되는데도 웃고 있어요.
왜 그래? 사업이 안 되는데도 웃을 만큼 좋은 일이 있어?
마음이 내시경이 돼 가지고 천국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빛의 열매에요, 이 웃음 하나가 빛의 열매에요.

이 웃음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변상황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해서 꼭 붙어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헛된 속임수의 말들을 끊고 하늘로 올라가는 내시경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헛된 말의 속임수에 묶여서 열매 없는 어둠의 행동들을 중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주님과 꽁꽁 묶여서 마음이 천국내시경이 됨으로써, 육체가 놓여 진 상황과는 관계없이,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